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다 나왔어요, 이제는 날 수 있어요”

제2회 백혈병 어린이 잔치에서 완치환아들의 건강한 모습들

발행인: 김 명 욱

편집인: 안 종 남

발행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회단체등록: 서울특별

시의약 제1호)

서울시 중구 을지로6가

18-131

(을지회관 618호)

전화: (02) 263-4231~2

F A X: (02) 263-4232

1993. 11.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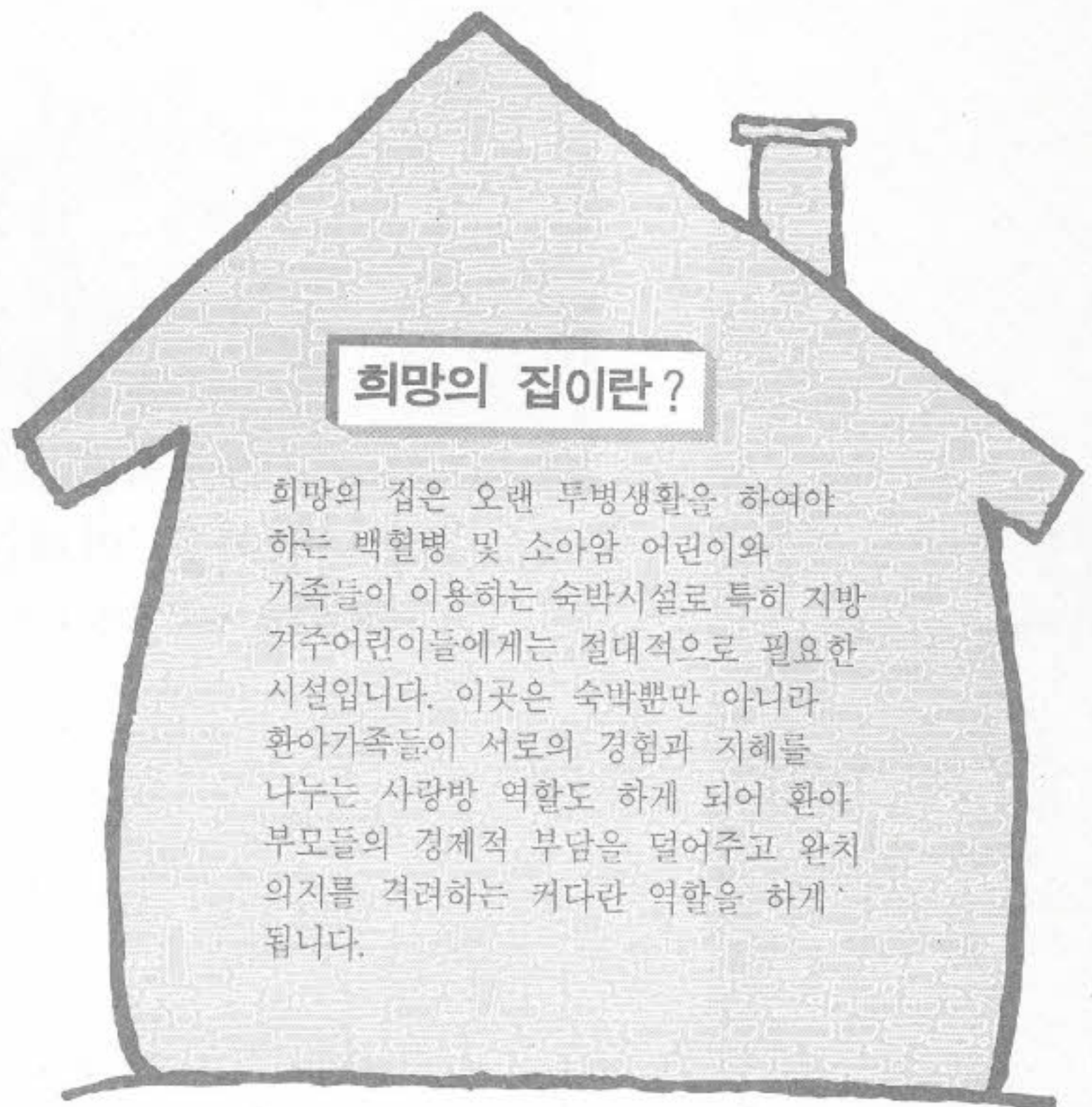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전개

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이 외래치료를 받으러 다닐 때 겪게 되는 고통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숙박시설인 희망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희망의 집은 숙박공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 환아들 끼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된다.

입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에서 치료를 받으러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희망의 집'은 백혈병어린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커다란 도움과 격려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운동에는 각 기업체 여직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후원구좌를 모아주고 있으며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후원자에게는 후원회에서 사랑의 멜로디 카드를 보내어 주고 후원자는 이 카드에 격려의 편지를 써서 백혈병어린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게 된다.

-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에는 100여군데 여직원회가 참여하여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하여 정성껏 후원구좌를 모아주고 있다.
- 사랑의 카드는 모두 5종류인데 이 카드의 그림은 현재 백혈병 치료중인 박준호군의 부친인 박남철 계명대학교 교수의 작품이다. 평소 '생명의 환희'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시는 박남철 화백의 그림과 후원자들의 사랑이 백혈병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찾게 할 것이다.
- 사랑의 멜로디 카드 제작에 (주)럭키화재해상보험에서 후원하였다.



제2회 백혈병 어린이 잔치

소식

“다 나왔어요. 이제는 날수 있어요!”

지난 11월 17일(수) 종로5가 연강홀에서는 진한 감동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있었다. 후원회에서 개최한 제2회 백혈병어린이 잔치였다. 행사에는 올해 백혈병 치료를 끝낸 어린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이와 가족들 그리고 후원자 4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1부 기쁨으로 시간에는 소아백혈병의 실태에 관하여 신희영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교수의 슬라이드를 겸한 설명과 이항 한양대학교 소아과 교수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이항 한양대학교병원 소아과 교수, 안효섭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 교수, 박종영 한강성심병원 소아과 과장께서 백혈병 치료를 마친 김수경양을 비롯한 30명의 자랑스럽고 대견스런 모습으로 건강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완치 기념메달을 수여하였다. 또한 OB베어스의 박철순, 김상호, 김형석, 이명수 선수가 싸인볼과 기념품으로, 그리고 럭키화재 새마음회 회원들이 꽃다발로 이들을 축하해주었다. 완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주치의에게 감사패와 꽃다발로 감사의 표시를 하였고, 후원금 전달식으로 1부 순서를 마쳤다.

2부 희망의 메아리와 함께 시간에는 조카 정재린군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가수 신행원씨와 해바라기의 축하 음악회가 있었다. 음악회는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고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격려하는 그리하여 모두에게 희망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다.

3부 기쁨으로 하나되어 순서에는 6년동안 백혈병과 싸워 이긴 김현지양의 시 낭송이 있었고 완치의 의지를 다지는 촛불의식이 있었다. 끝으로 이날 자리한 사람들 모두 ‘사랑으로’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2시간 동안의 새생명의 기쁨과 사랑의 격려가 넘치는 감동의 순서를 모두 마쳤다.

● 후원금 전달식

이날 후원금 전달식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불교사회 봉사회에서 김미정 간사가 참석하여 김혜영, 노인하, 김성현 어린이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 11월 5~6일에 있었던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Joseph Sabatini(JP 모건 증권회사, 미국)씨가 후원회에 기탁한 후원금을 이수연 어린이에게 전달하였다.

●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참여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직원회에서 그동안 모은 후원금과 후원구좌 전달식이 있었다.

금량회(금성기전 여직원회, 회장 정은영)
럭키금성상사 여직원회(회장 박은주)
청란회(삼희투자금융 여직원회, 회장 김민정)
하나회(기아자동차 여직원회, 회장 강은미)

● 행사후원

백혈병 어린이잔치를 위하여 (주)한국그락소 연강재단, OB베어스 선수단 그리고 김덕현 변호사께서 후원하여 주셨다.



▲ 후원금 전달식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주치의 입장

‘희망의 집’의 필요성

일년에 전국적으로 약 400명에 가까운 소아백혈병 환자가 발생하고 약 1,000명의 소아 암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아 암환자의 약 75%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방도시 중에서 부산, 대구, 광주 등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소아 암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외 중소도시에서는 소아암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이 지방의 환자들은 하는 수 없이 서울로 오게 마련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경우 전체 환자의 약 50%가 지방환자들입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은 그런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일단 입원치료가 끝나고 외래로 통원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최근 항암치료의 발전으로 치료의 성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치료의 강도도 높아져서 주사를 맞는 횟수도 증가하고 따라서 백혈구 검사를 하러 병원에 오거나 열이나서 병원을 찾는 횟수도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울이나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은 별 문제가 없으나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들은 잠깐의 진료를 위하여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고생을 하며 서울로 와야 하고 또한 척추주사를 맞고도 충분한 시간 쉬지도 못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어른도 녹초가 되는데 치료를 받는 어린이들은 오죽 피곤하겠습니까? 또한 요즘과 같이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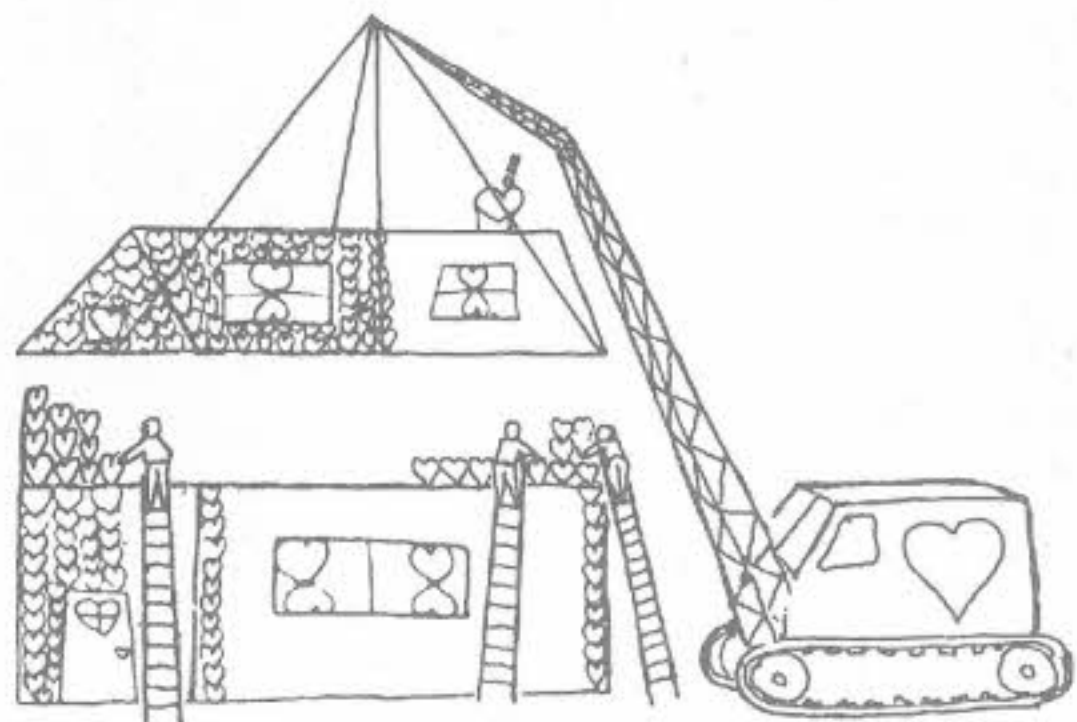
매일 주사 한번씩 5일 연속으로 주사를 맞는 경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면 편하겠지만 입원을 하였을 때의 경제적인 부담은 제쳐 놓더라도 병원의 입원실은 제한되어 있고 새로 입원을 위하여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환자로 인하여 이런 환자에게는 입원실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에 주사를 가져가서 맞고 싶어도 항암제를 자신있게 놓아주려고 하는 병원이 없고 또한 부작용이 생길까봐 부모님의 마음은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항암제를 계속 맞는 어린이의 경우 대개 병원 건물만 보아도 속이 울렁거리거나 토할 정도로 병원이라는 환경은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거부하고 싶은 환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에게 병원에서는 주사만 빨리 맞고 남에게 눈치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부담도 없으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 있다면 아주 편안하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암제로 인하여 식욕이 떨어진 상태에서 병원의 냄새나는 밥보다는 엄마가 지어주는 밥이 훨씬 맛있는 밥이 될 것이고 잘 먹으면서 치료를 받으면 항암제의 부작용도 훨씬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 희 영

본회부회장, 서울대학교병원소아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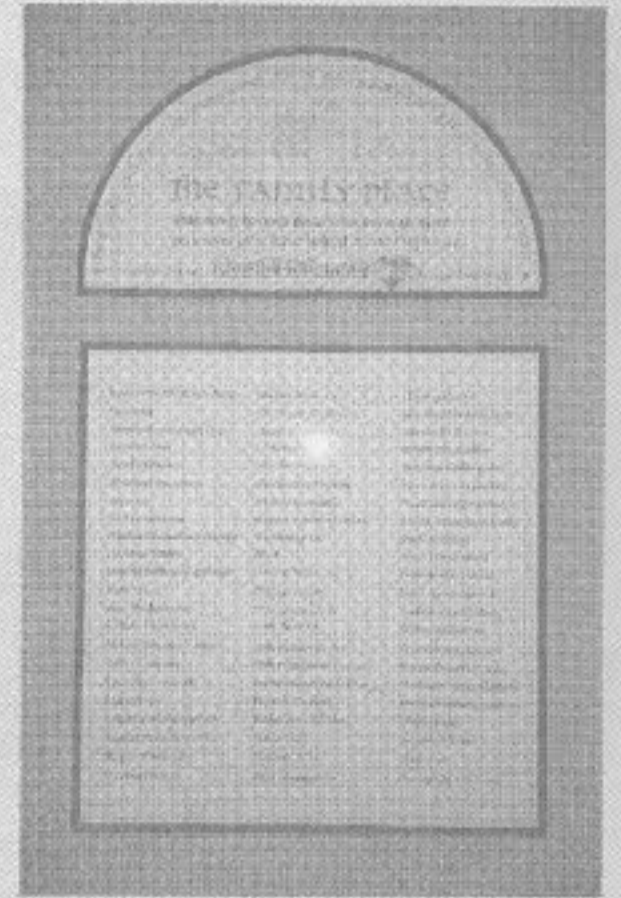


미국 환아의 집 'Ronald McDonald House'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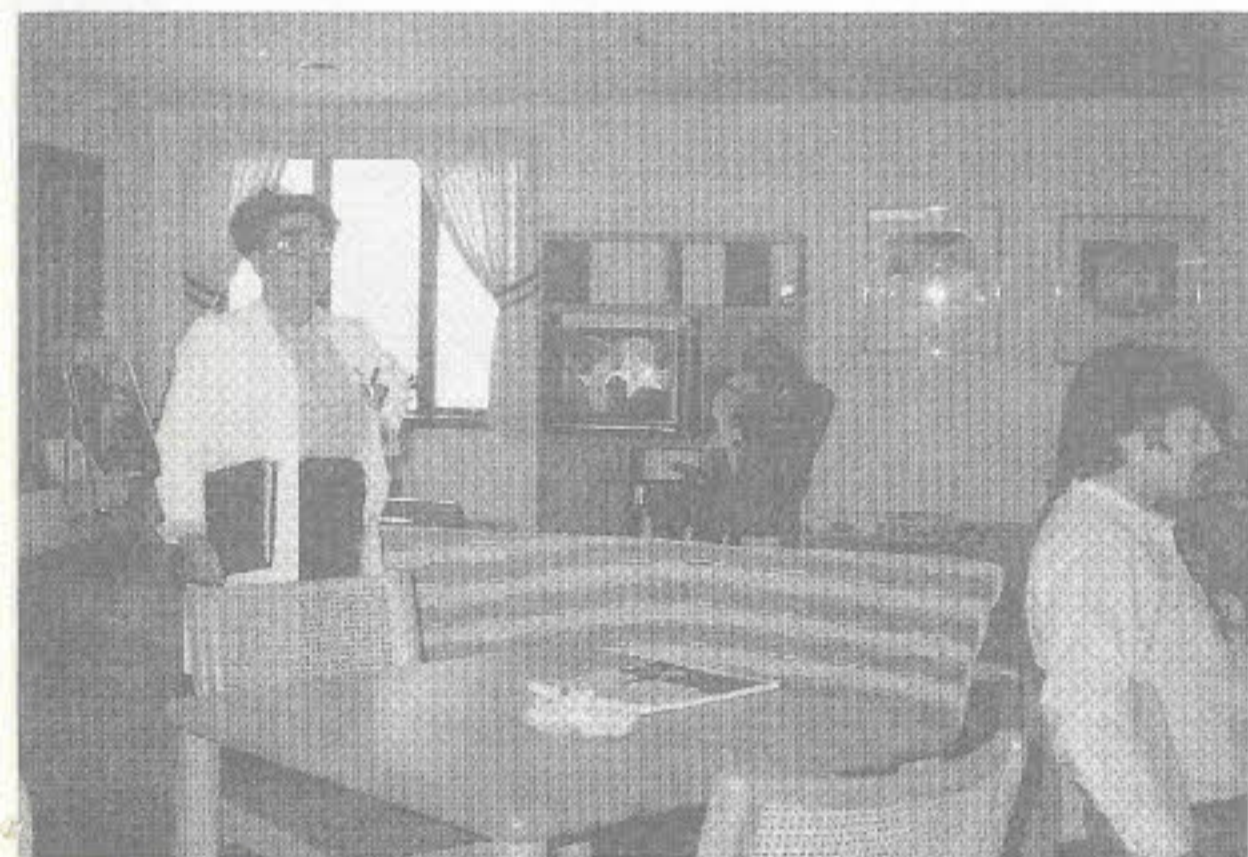
1989년 가을, 나는 병원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의해 시카고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시카고대학병원 와일러(Wyler) 아동병원에서 3개월간을 지냈다. 그때 흑인 사회사업가에 의해 우연하게 이끌려져 간 곳이 환아의 집 'Ronald McDonald House'였다. 환아의 집에 대한 얘기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차 있었다. 그녀손에 이끌려져 간 Ronald McDonald House는 Family Place란 별칭을 가지고 와일러 아동병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병하는 환아와 함께 가족들이 환아 가까이서 숙박하며 환아를 수시로 들여다 보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보였다. 환아의 집에 다다르니 예쁜 붉은 벽돌 3층 건물이 눈앞에 다가왔고 이곳도 문을 연 지가 3년뿐이 안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필자를 맞아 준 것은 House manager 대신 그날 마침 사무실에 나와 있던 환아의 집 이사회 이사인 Ann Eppen(시카고 대학 경영학과 교수 부인)으로 이 일을 몹시 자랑스러워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미군과 결혼해 미국에 와 살던 한국여자와 그 아이가 몇달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때를 얘기하며 그녀가 어려운 고비를 자신들과 함께 어떻게 넘겼고 환아의 집에서 보여준 그녀의 이타적인 행동과 한국 요리맛을 무척이나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곳이 얼마나 입원 환아 가족들에게 중요한 곳인가를 역설하였다.

환아의 집 Ronald McDonald House는 맥도널드 햄버거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며 후원을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미국 대도시에 10여개가 분포되어 있었다. 시카고 경우에는 맥도널드 후원 외에도 시카고 전체가 모금운동에 힘썼고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외국의 사례



▲환아의 집 후원자 명단



▲거실



▲소아 입원환자 가족과의 대화

세계적인 유명 농구스타 마이클 죠단도 후원자라고 하였다.

환아의 집 안으로 들어서니 넓은 공동 공간에는 거실, 부엌, 놀이실 등이 있었는데 넓고 아늑한 거실에는 환아 부모 5,6명이 원탁에 앉아 담소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는 대형냉장고 2개에 부엌가구들이 대칭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식품 보관소와 냉장고에는 기증된 음식 및 재료들이 가득 차 있었다. Ronald McDonald House에서 식사 제공은 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얼마든지 취사가 가능하였다. 어린 환아 형제들을 위한 놀이실에는 전자오락기를 비롯 각종 놀이감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밖의 공간은 전부 가족 단위 침실이었는데 침실들은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손이 갔는지 2~3개의 침대 위의 침대보나 커튼, 가구, 양탄자가 최대한의 안락함을 제공해 주고 있었다. 하루 5\$(뉴욕은 10\$이라고 하는데 개인당인지



박혜영
본회이사, 서울대학교병원 사회사업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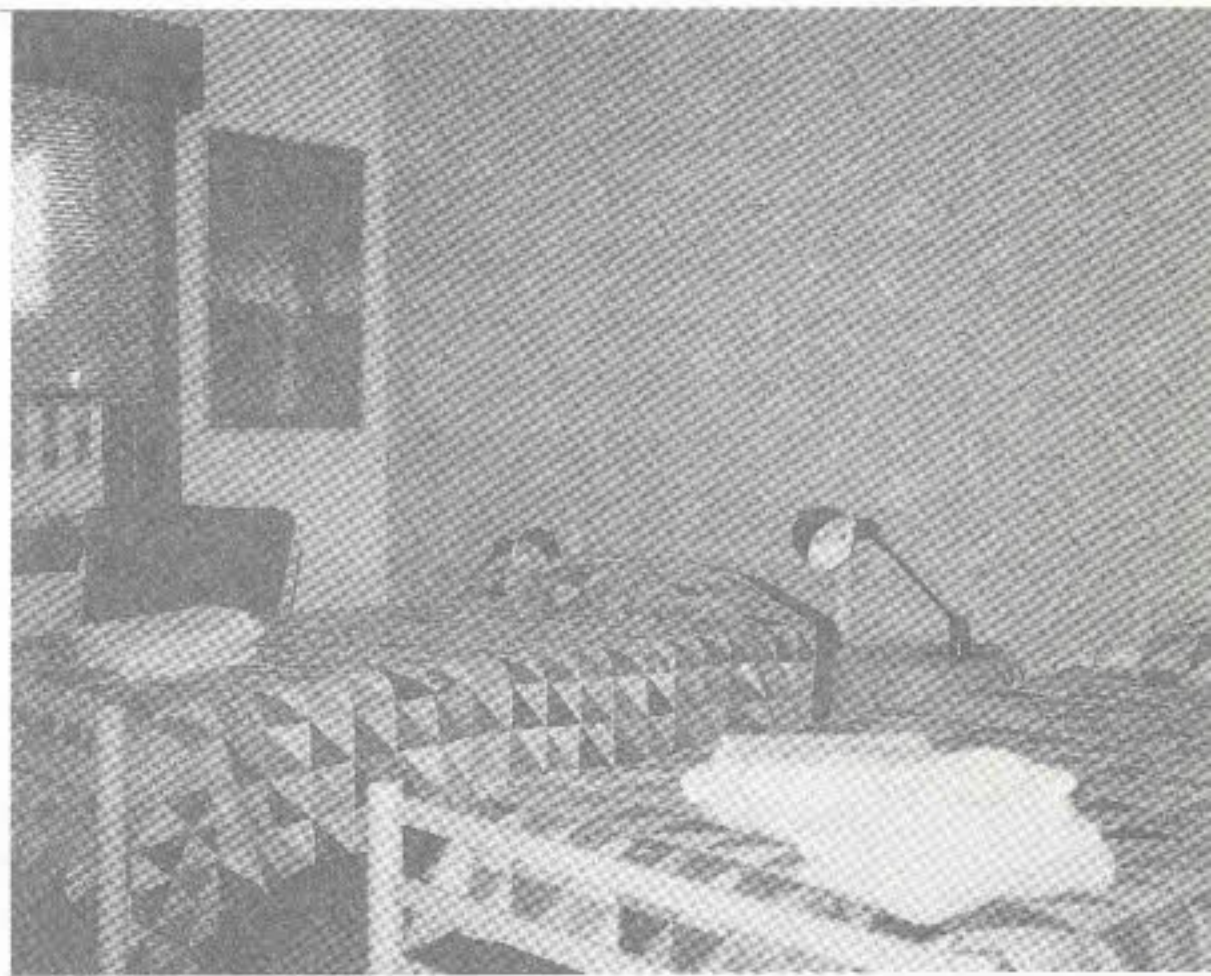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외국의 사례**

가족당인지는 잊어 버렸음)에 편안한 잠자리, 식사, 안락함, 대화, 게다가 무료 장거리 전화(전화회사의 협조)까지 제공되는 것이다.

환아의 집 사용은 일년내내 100%를 상회하는데 환아의 질병은 어떠한 질병으로 국한되지 않고 직계가족이 우선권을 갖는다. 이용 기간은 자녀 입원기간과 병행해 가능하고 이용중 조리과 빨래는 스스로 한다. 단 전염성 질환자나 과음, 흡연, 배우자나 아동학대, 기타 다른 가족들에게 방해적인 행동을 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가족은 환아의 집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아의 집 운영은 이사회를 비롯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유급 House Manager 1인의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소독, 정원가꾸기, 세탁, 페인트 칠하기, 유리창 닦기 등이 모두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실



▲침실(한 가족用)



▲부엌(냉장고와 찬장에는 기증된 음식물들이 가득)

환아의 집에 대한 환아의 집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시카고 시민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그것은 매년 가을에 열린다는 기금모금 패션쇼에서 알 수 있었는데 시내 일류 호텔의 홀을 가득 채운 시카고의 내노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부부동반 하여 쇼를 즐기고 담소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었다.

4년 전인 그때 한국에서는 요원한 일로 보였던 환아의 집 추진이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환아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그 꿈이 언제 실현될지는 몰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감개가 무량하다. 환아의 집 마련은 선진국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훨씬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 비용 외 부대비용 부담이 크고 지방 환아 가족의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이용률이 높으며 그들이 겪는 장기적인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음을 볼 때 환아의 집 마련은 백혈병어린이 후원회와 관련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대비용을 아끼느라고 부모가 아이 침대 한 귀퉁이와 장의자에서 불편한 잠을 자고 컵라면 등으로 식사를 때우며 아이를 잃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떠는 소아암 환아 가족들의 고통을 환아의 집 마련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 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친척집엘……”

여인섭. 남자아이, 지금 4살.

작년 2월에 백혈병 발병 현재 외래 치료중.

집이 군산인 인섭이는 병원에 오는 날이면 새벽에 일어나 배를 타고 장흥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또 지하철을 갈아타야지만 병원에 올 수 있다. 항암제 복용으로 힘이 들고 입맛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아침은 물론 점심도 거르고 병원구내에서 파는 김밥으로 대충 때워야 한다.

오르내려야 하는 계단도 새벽잠을 설치고 나온 인섭이에게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작 고생은 지금부터다. 척추주사를 맞고 나면 6시간 이상을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다. 할 수 없이 여관으로 갈 수 밖에. 백혈구 수치가 낮아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여관에 머문다는 것은 인섭이 부모님들에게는 돈도 돈이지만 몹시 찜찜하다. 인섭이가 퇴원하고 강화요법을 받기 위하여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척집에 머물러 보았지만 아픈 아이를 데리고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걸려 하는 수없이 여관에서 묵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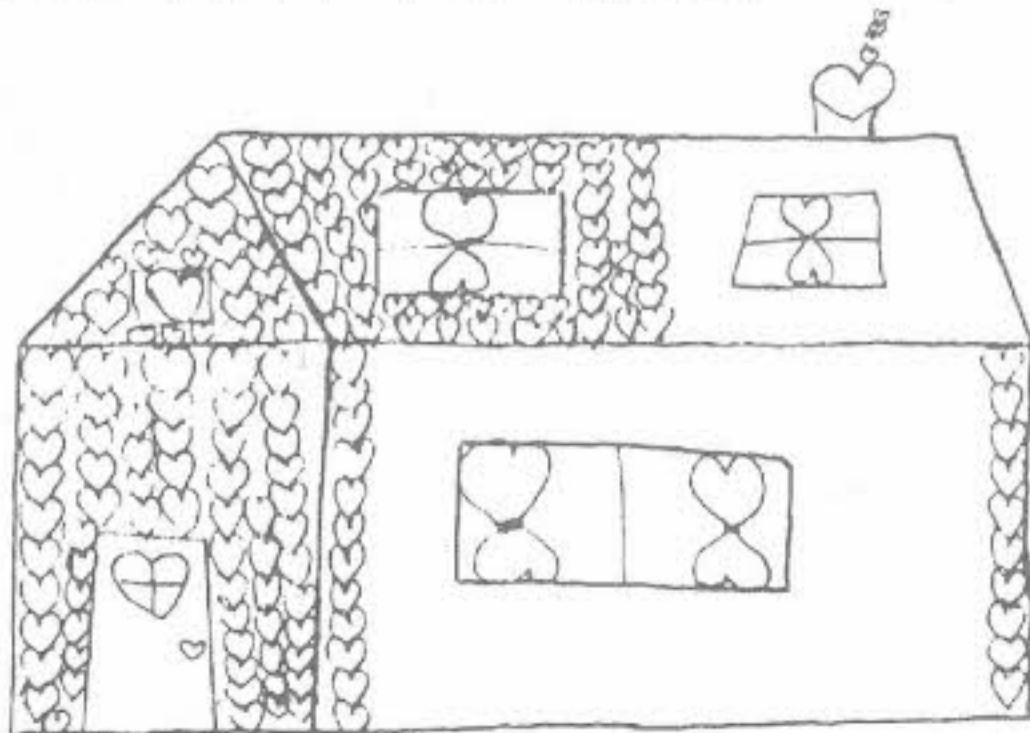
이것은 병원가는 날이 정해져 있을 때 일이고 열이 난다든가 또는 응급사태가 발생할 때이면 더욱 암담하고 망막해 진다고 한다.

“그럼요,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9살인 은옥이는 지난 1988년부터 백혈병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벌써 5년째이다. 은옥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는 것은 치료 중간에 재발을 했기 때문이다. 집이 강원도 춘성군 시골 마을인 은옥이는 병원에 오려면 하루 전날 춘천으로 나와 여관에 묵고 몇번씩 차를 갈아타고 병원에 와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밥 사먹고 하려면 막상 병원의 약값보다 엄청나게 많이드는 비용을 마련해야 병원에 올 수가 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은옥이네는 이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병원에 오지못해 하루도 중단하면 안되는 약복용을 한달씩 중단하곤 했다. 결국 은옥이는 재발하게 된 것이다.

은옥이 어머니는 은옥이와 같이 치료를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는 완치가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에서 뛰어노는 것을 볼때 하나 밖에 없는 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숨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 된다고 한다.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고생을 끝내고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었을텐데……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이렇게
병원에 다녀요(I)
여인섭(남 4)

이렇게
병원에 다녀요(II)
안은옥(여 9)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참여하면서(I)

노이로제, 스트레스……, 자신에게 생기는 모든 ‘독(毒)은 꼭 옮겨지는 데서 온다. 놓아주면, 꼭 옮겨진 걸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행복이다.

무겁게 짓눌려 있던 가슴이 우리 금성기전 여직원회의 자그마한 정성으로 다 소나마 가벼워진 일이 있었다. 행복이다.

일주일 정도 전인가보다.

제법 묵직해 보이는 황색 봉투가 가슴 아린 사연을 싣고 내게 보내져 왔다.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

현대 의학의 발전이 백혈병을 조금은 덜 무서운 병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어디선가 흘러들곤 반가워했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 지금은 기억에도 희미해진 영화 ‘마지막 콘서트’를 상기하며 그 때의 애뜻함을 그리워 해보기도 했다.

우스운 상념 끝에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한부 인생의 아련한 사랑 얘기가 아니었다. 우리의 새싹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우며 생동해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으로 생과 사를 넘나들고 있다는 가슴시린 이야기였다.

치료가 가능해졌다지만 어른들에게조차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 몸부림치게 하고, 치료에 드는 비용 또한 그 규모가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얘기였다.

노란 봉투가 그들에게 힘과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주지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무던히도 들어 식상해 버린 무슨 무슨 운동, 언제나처럼 연말쯤이면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행사, 어찌구 저찌구……, 주위에서 들려올 수많은 건조함에 문득 가슴에 쓸쓸함이 차음을 느꼈다.

하지만 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 역시 큰 병으로 고생하던 동생을 애처로이 바라만 보며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눈물지은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창가에 서서 창 밖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움이기 때문이다.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이 운동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직원회를 소집했다. 호응이 적으면 어찌나 하는 걱정 속에서 조심스레 백혈병 어린이 후원회에 대해 소개를 했다. 왜 「희망의 집」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들의 사랑스런 꼬마들을 상기시켰다. 우리 가슴속에 담겨진 따뜻한 사랑을 불러 내었다. 걱정과는 달리 우리 여직원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 오히려 걱정을 했던 나 자신의 오만이 미안하기까지 했다. 모두가 열성적이었다.

각 부서에 돌릴 사발통문(회람지)를 만든다, 게시판에 붙일 홍보지를 작성한다 하며 분주히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여직원들은 전체 사우들에게 일대일로 붙어 「희망의 집」에 관해 설명하였고, 카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 권유하였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이렇게 가슴 뿌듯한 일인지!

우리가 계획을 수행한 지 1주일 만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백혈병 어린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지원해 주셨다. 두 손에 모아지는 사랑들이 그 무게를 더해감에 따라 눈이 아려왔다. 마주치는 여직원들마다의 눈길에서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행복이었다.

모아진 성금을 들고 ‘제2회 백혈병 어린이를 위한 잔치’에 가는 나의 발걸음은 새털같이 가벼우리라. 모아진 따뜻함이 나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있음을 느낀다.

어린 아이들을 그리도 사랑하셨다면 성철 큰스님이 빗속에 길을 떠나셨다.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한다.

‘성인 성자들이 여기 저기에 나타나 좋은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도 그 분들이 너희들과 이렇게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 분들의 사명이요, 사랑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베풀며 산다면 더이상 성인 성자들이 여기 저기,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 이라고.



정은영

금성기전 여직원회 금량회 회장

겨울의 차가움에 서로의 손을 맞잡는 모습이 좋아보이는 계절이지만, 어느새 쓸쓸함과 삭막함도 잊은채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인것 같습니다.

일상의 일들로 꽉 채워진 낮익은 얼굴과 익숙한 장소를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마주 대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가운데 남들의 불편함과 외로움에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난것에 참으로 고마움을 느낍니다.

누군가에 글로써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면서 그 분의 어려움에 보탬이 된다는 것에 큰 부담감없는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잊고 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아주 작은 일상적인 참여이지만 이것들이 모여져 뜻깊은 일을 이루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참여하면서(II)



김민정

삼희투자금융여직원회 청란회 회장

상담실에서

감당키 어려운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랑의 온정

추석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소라 아버님이 후원회 사무실에 찾아 오셨다. 그렇지 않아도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어 집에 가 있는 소라가 몹시 궁금하였는데 우선 반가웠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뿐. 5일전에 하늘나라로 간 소라를 소라가 좋아하는 물가에 띄워 보내고 오시는 길이란다. 소라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복용하는 박트림을 스스로 찾아서 복용하였단다. 어린 것이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울어 버렸다.

마지막 제주도 여행을 떠났던 용석이, 용석이 형을 그렇게 따랐던 영신이..... 이 절식할 것 같은 슬픔과 절망-멀리 도망치고 싶다.

그러나 마음껏 외치고 싶다.

‘이 죽음과 애통함이 결코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다고, 아니 이 시련속에서도 새 소망과 새로운 삶을 찾겠노라고’

소라 아버님은 소라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라가 쓰다남은 헌혈증서를 한뭉음 가져오셨다. 다른 아이들에게 전해달라고 가져오셨단다.

후원회 상담실에서 많은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 대개는 아이의 발병으로 인한 당황과 미래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전화를 많이 하신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신다.

그러나 이 감당키 어려운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랑의 온정이 끊이지 않기에 후원회가 유지되어 간다. 하루는 평소에 잘 아는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후원회 구좌에 후원금을 입금시켰는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누구에게 익명으로 전해 달라는 내용이다. 내 아이 앞가림도 힘이 드실텐데 적지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신 것이다. 서울대학병원 고준태 선생님의 장모님께서서는 본인이 암치료를 받으신 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어떻게 어린이들이 감당해 나가는지 대견스럽다고 어려운 아이를 도와 주라고 후원금을 보내 주셨다. 또한 상찬이 아버님이 근무하시는 한영건설산업의 김영환 사장님께서도 생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주셨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는 한미은행 여직원회인 백합회(회장 최종영)로 부터 작은 정성을 보내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그렇지 않아도 추석을 앞두고 부모없이 어렵게 백혈병 치료를 하고 있는 세정이와 미현이가 몹시 안타까웠는데 이 아이들에게 후원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아이들의 슬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기력과 한계를 절감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과 관심은 지난 5월 백혈병어린이 완치 기원 연날리기 대회에서 푸른 하늘에 후원자들의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연이 하늘높이 날았듯이 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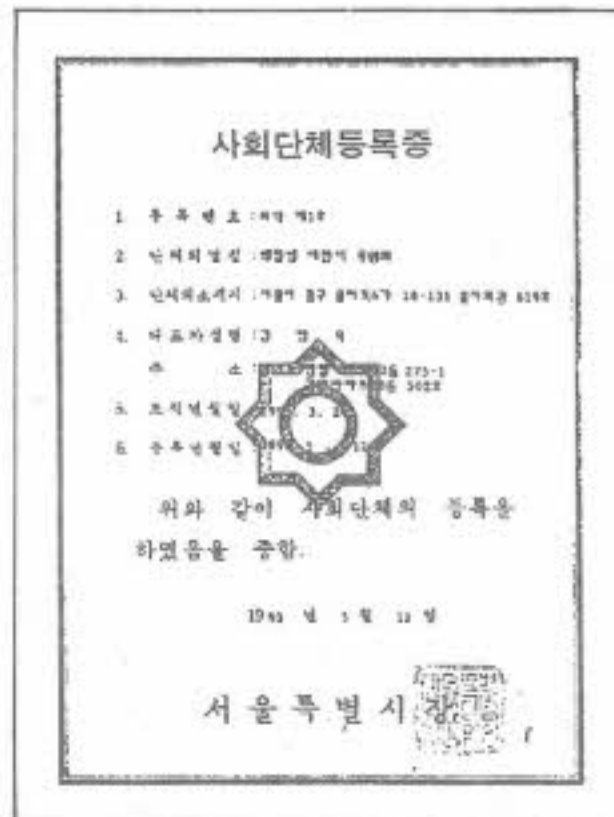
그동안 여러가지로 도와주시고 있는 후원자들에게 무어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희망의 집’을 만들기 위해 사랑의 벽돌을 열심히 모아 주시고 있는 여직원회 회원 여러분들과 후원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린다.

OB 베어스 참관 • 사회단체 등록 • 연날리기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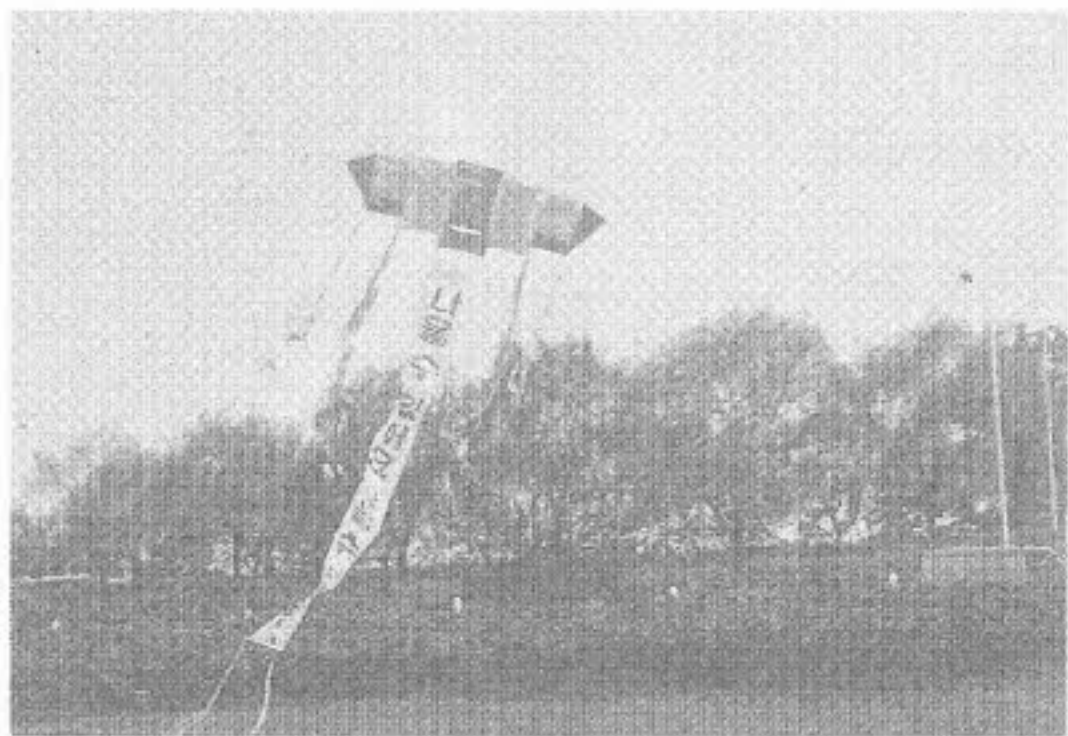
의와



▲그래, 고생 많지!



지난 5월 12일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등록(의약 제1호)



▲“나올 수 있어요, 날 수 있어요”-연날리기 대회



▲제2회 푸른 우리마을 여름 가족캠프



▲친구들과 다정하게



▲즐거운 오락시간

여름 가족캠프 • 백혈병어린이 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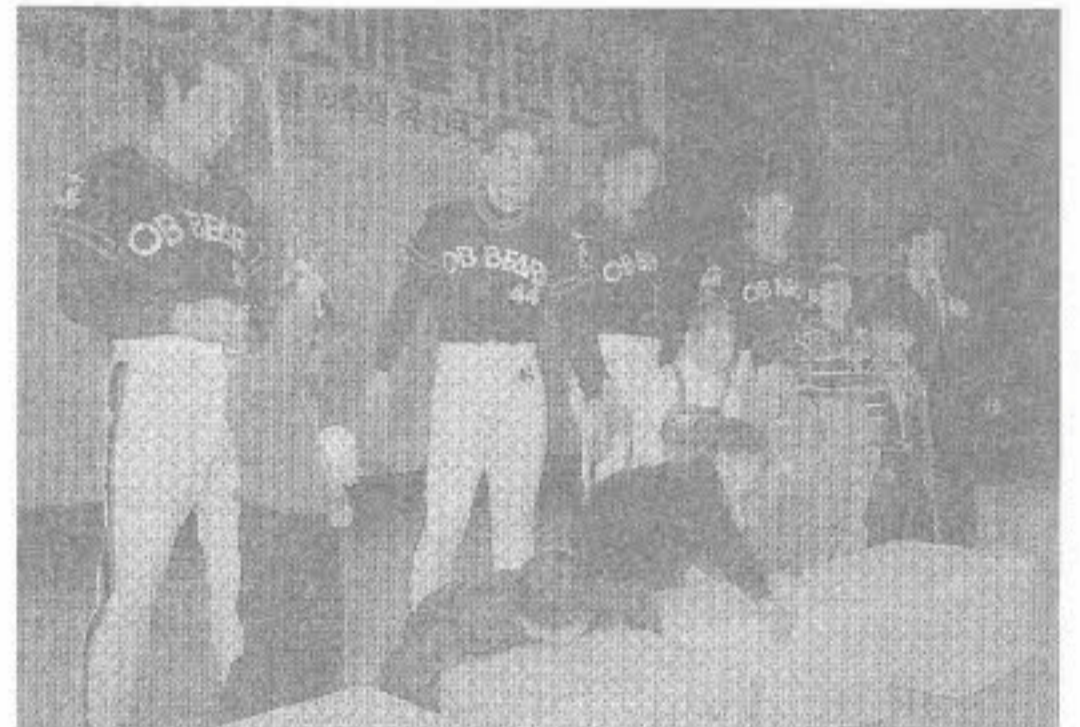
▲완치의 의지를 다지는 촛불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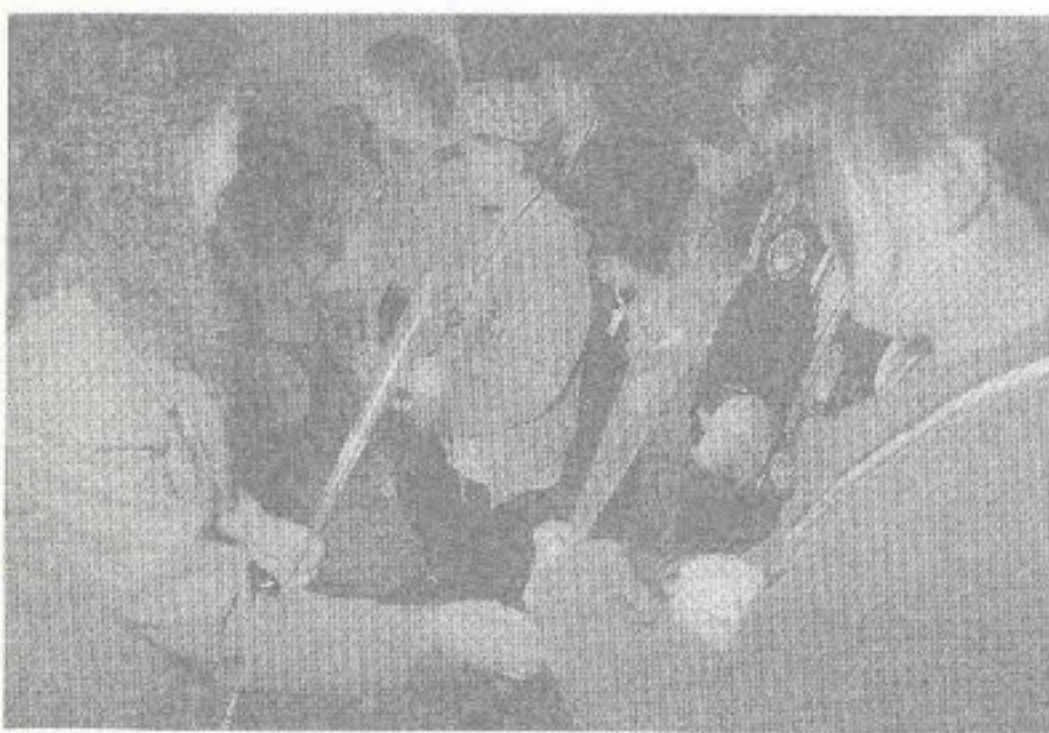
▲완치 기념메달 수여



▲백혈병 치료를 끝낸지 10년
-이제는 어른이 된 늙름한 모습



▲아이쿠 무거워-OB베어스 선수단의 선물을 받으며



▲축하한다-럭키화재 세마음회 누나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에 참여한 분들

희망의 집 마련을 위한 사랑의 카드 보내기 운동에 후원구좌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00구좌가 모이면 아쉬운데로 희망의 집을 만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쌓아 주시는 사랑의 벽돌은 백혈병 어린이를 비롯한 소아암 어린이들과 부모들에게 희망과 웃음이 활짝 피어오르는 예쁜집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1993. 11. 25. 현재)

금랑회 (금성기전 여직원회)	70구좌	백은실	1구좌	박영길	6구좌
청란회 (삼희투자금융 여직원회)	232구좌	배혜정	1구좌	조의영	1구좌
얼룩소회 (서울우유 여직원회)	102구좌	이명희	2구좌	이원식	1구좌
럭키금성상사 여직원회	2,825,000원	임동운	10구좌	이희정	1구좌
하나회 (기아자동차 여직원회)	1,700,000원	이혜영	1구좌	송승용	1구좌
예지회 (한신공영 여직원회)	1,500,000원	강혜영	1구좌	김형임	6구좌
한전여직원회	100,000원	이윤배	2구좌	이정창	2구좌
사슴회(한양유통여직원회)	40구좌	이영숙	4구좌	강근대	2구좌
안효섭(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교수)	40구좌	박영자	1구좌	정재필	1구좌
이정옥 (환아부모)	1,000,000원	오준택	1구좌	김성진	1구좌
조홍원 (환아부모)	300,000원	강철완	2구좌	금복주	10구좌
송호찬 (환아부모)	1,000,000원	김철균	1구좌	이현자	1구좌
이명숙 (환아부모)	80구좌	이범희	1구좌	박용식	20구좌
신승용 (환아부모)	200구좌	한혜정	1구좌	최영상	1구좌
이윤진 (환아부모)	100구좌	성경숙	1구좌	이승현	1구좌
닝쿨회 (한영실)	6구좌	최은정	1구좌	이지현	2구좌
김민정, 김민수	1구좌	김진자	1구좌	김진숙	2구좌
이은미	50구좌	주형준	1구좌	최정연	2구좌
구덕은	1구좌	이영호	1구좌	이문환	1구좌
이병린	4구좌	최보운	1구좌	노덕환	4구좌
안은미	10구좌	최영욱	1구좌	김상화	20구좌
이경진	2구좌	이현주	4구좌	강귀녀	1구좌
김혜림	2구좌	신 화	2구좌	박한경	2,000원
김재원	1구좌	김정현	6구좌		

참여안내

- 뜻이 있는 분은 후원금(1구좌에 5,000원 이상)을 납부하여 주시면 사랑의 카드와 어린이의 참가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이 사랑의 카드에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백혈병어린이후원회(263-4231~2)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은행지로번호 : 7607451

• 은행온라인번호

• 예 금 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 구좌번호 : 국민은행 001-01-2353-890

조흥은행 310-03-002396

중소기업 090-29-0001-756

보관용